

#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6 년 10 월 16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6 년 10 월 16 일(주일) 오후 3 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너에게" (시, 정호승-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이야기) ----- 다함께

"역설적 주기도문" & "오늘의 주기도문"(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15-21

화두: 오늘의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길 - 예수를 묵상함" (시, 이성복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아름다운 사람" (노래, 김민기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 한 마음 한 노래 (시)

### 너에게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 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고  
바람 부는 곳으로 쓰러져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 서서  
홀로 울던 너의 흰 그림자

낙엽은 썩어서 너에게로 가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는데  
너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사막 위를 걷고 잇는가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사막 위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

(시, 정연복 - 낭독: 해나)

## 한 마음 한 노래 (시)

### 역설적 주기도문

당신이 다만 세속적인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속에서 아무런 반성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거룩하신 깊은 뜻을 가슴에 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느님 뜻과 세상적인 성취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희생을 견딜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병원도 갈 수 없고 집도, 직장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욕망에 의해 저지르는 잘못들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계속 가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이 깊다면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악을 반대하는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의 기도'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 작자 미상 - 낭독: 장동인)

### 오늘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시며,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밭이 되십니다.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등이  
당신께로부터 솟아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 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모든 이기적인 욕심과 목표를 떠나, 당신의  
백성인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이 땅에서 불의와 억압과  
폭력을 몰아내고, 사랑과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대 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쓰게 하옵소서. 가진 자들의 욕심으로 더 이상 가난한  
이웃들이 고통받지 말게 하옵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구나 골고루 나눠 갖는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억압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깨우쳐서 그들도 삶의  
참가치를 맛보며 살 수 있게 하려 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신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 낭독: 장동인)

##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15-21**

**화두: 오늘의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가?**

**일자: 2016년 10월 16일**

4:15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4:16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자렛에 가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4:17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 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4:18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4:19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4: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4:21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4:15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and everyone praised him. 4:16 He went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on the Sabbath day he went into the synagogue, as was his custom. And he stood up to read. 4:17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handed to him. Unrolling it, he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4:18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4: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4:20 Then he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The eyes of everyone in the synagogue were fastened on him, 4:21 and he began by saying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 한 마음 한 노래 (시)

### 길 - 예수를 묵상함

그때 그분이 걸었던 길을  
나도 덩달아 걷고 싶다.

화려하기는커녕  
가난하고 이름 없는 길

세상의 변두리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

작고 불품없는 생명들이  
서로 따듯이 보듬고 아껴주며

말없이 사랑과 인정(人情)의 꽃  
한 송이 두 송이 피어나는

그 눈물겹게 아름다운 길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

하늘에 구름 흐르듯  
바다로 강물 흘러가듯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 무심한 모양으로

그 길 위에서  
내 한 생애 피고 또 지고 싶다.

(시, 정연복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 작사 작곡

C F C

어 두 운 비 내 - 려 오 면  
 람 어 오 면  
 관 내 - 려 오 면

5 Am Em F D7 G

처 마 밑 에 한 아 이 울 고 서 있 네  
 들 - 판 에 한 아 이 달 - 려 가 네  
 산 - 위 에 한 아 이 우 뚝 서 있 네

9 C Em F Fm6 C

그 맑 은 두 눈 에 빛 물 고 이 면 음 -  
 그 더 락 가 숨 에 노 래 울 리 면 음 -  
 그 고 락 마 음 에 노 래 울 리 면 음 -

13 Am Dm G7 C

- 아 름 다 러 그 이 러 사 람 이 어 라 새 찬 바  
 - 아 름 다 러 그 이 러 사 람 이 어 라 새 하 안  
 - 아 름 다 러 그 이 러 사 람 이 어 라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다  
발 아래 놓인 아름다운 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뜰에 인내를 심어  
그 뿌리는 쓰지만 값진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명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유연한 감성으로  
인생의 난관도 잘 이겨 낼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 그 누군가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며  
하느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에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바른 길 가도록 붙들어 세워 주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존중하며  
남은 생애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 오늘임을 잊지 않고  
희망과 열정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